

國語生活의 機械化

金 敏 洙
(高麗大 教授, 國語學)

1

우리 言語生活의 機械化는 聲의 상 音聲言語와 文字言語의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된 관심은 文字의 機械化에 경주되었다. 그것은 대중적인 印刷과 개인적인 打字에 걸치지만, 특히 우리에게서는 후자가 어려운 과제였다. 印刷은 人類文化史上 長足の 발전을 거듭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그 近代化는 19 세기에 발명된 活版印刷가 그 시발이며, 打字도 기업화되기 시작한 19 세기 이후에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개인용인 打字는 발전하면서 대중적인 印刷의 몫도 겸하게 되었다.

한편, 音聲言語의 機械化도 역시 1876 년에 벨(A.G. Bell, 1847~1922)에 의하여 有線電話가 발명된 이후 가속도로 근대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론 학문적으로 實驗音聲學의 발전이 뒷받침된 성과이나,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學際的(interdisciplinary) 相乘作用에 힘입어 더욱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그 놀라움이란 이를테면 人工的 合成音聲, 文字의 音聲化, 音聲의 文字化뿐만 아니라, 言語와 言語 사이의 전환을 자동화하는 翻譯機械가 실용화될 것이 분명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機械化로 오랜 인류의 꿈이 실현될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

다고 하겠거니와, 종전에 손으로 써서 다만 副本의 수량을 늘였던 단계를 생각하면 天壤之判을 실감하게 한다. 실상 文字의 機械化에 이어 音聲이 기계화되었을 단계만도 이들은 서로 별개의 차원이었는데, 映像의 機械化가 추가됨으로써 그 꿈은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 물론 중추적 기능을 다한 電算機의 실용화이나, 더 중요한 것은 電算機가 어디까지나 기계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言語生活은 장차 그 꿈이 실현됨으로써 필경 筆記具가 사라진 시대, 그 대신 기계의 키를 조작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文筆家는 그 기계에 매달리는 工員의 신세가 되지 않겠는가? 이 상황을 전망하면서 특히 예상할 것은 虛無主義가 아닐까 생각된다. 전통적 기성의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고 지나치게 生存을 무의미하다고 여긴다면 인간이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기계는 인간을 위한 道具이며, 결코 도구를 위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문제의 打字機는 일찍부터 고안되기 시작했으나, 그 실용화는 195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西洋에서는 이에 앞서 1878년 뉴욕 레밍톤 회사, 뒤이은 언더우드 회사가 세계적으로 진출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 기계의 출현은 書寫生活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가장 효율적인 면은 무엇보다도 글씨쓰기보다 빠르고 동시에 4~5장의 副本까지 작성된다는 점이었다. 또한, 字體가 선명하여 남의 글씨를 뜯어 읽으려 애쓰지 않게 되고, 그 리본빛을 바꾸어 色度를 나타내는 것도 한 특징이었다.

한글打字機는 1910년대에 들어서 레밍톤 제품이 최초로 선보였으나, 그 文字構造의 탓으로 비실용적이었다. 키가 88개인데도 字形이 몹시 거북하고 字列도 불규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한글을 뜯어써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32년에 宋基柱의 고안으로 된 언더우드 제품이었으나, 그러한 文字改革은 일반인에게 먹히지 않았다. 이후 한때 한글 풀어쓰기의 제안이 계속된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원천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고안한 것이 1936년 林語堂의 中文打字機였다. 30년만에 발명했다는 이 明快打字機는 무릇 7만 字種에 1분 50자 속도였으나, 너무 복잡해서 副本의 이익뿐이라고 평가되었다. 국내에서는 1949년에 眼科醫 公炳禹에 의하여 雙焦點 한글타자기가 고안되어 빠른 속도를 자랑삼았지만, 문제는 속도 못지 않게 중요한 字形美의 결여였다. 이 3벌식을 보완한 것으로는 張鳳善이 고안한 5벌식이 속도는 다소 느려도 한몫을 했는데, 이윽고 4벌식이 또 등장했다.

打字機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물론 그 속도이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조건은 그 字形美다. 그 완성품이란 필요한 字種과 字形美를 다 구비한 것이므로 우선 5벌식의 수요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字盤統一이란 미명하에 이를 절충한 4벌식을 政府의 표준 자판으로 제정하여 통일을 강행했으니, 이는 형식적인 그 통일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계 자체의 통일이었다. 따라서, 이 조치는 결국 그 중요한 요건인 속도와 字形美를 모두 상실한 얼치기를 만들라고 명령한 꼴이 되고 말았다.

3

오늘의 打字機는 내 발에 맞는 구두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기성화에 발을 맞추는 식으로 개발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다. 가령, 그 字種은 물러식 키라든가, 字形은 電動式이라든가 하는 방안으로 숨통틀 길이 열린 것과 같다. 그런데, 한글 풀어쓰기와 같은 文字改革을 전제한 개발은 신에 발을 억지로 맞추자는 식이어서 主客顛倒의 발상이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文字生活에 꼭 맞는 도구로서 어떻게 필요한 字種과 字形을 갖추어 얼마큼 편리를 꾀하는가에 있다.

우리의 文字生活에서는 실제로 한글과 적당량의 漢字가 필요하고, 시대적 요청에 따라 로마자도 불가결하다. 그러나,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롤러식 키와 유사한 日本의 이른바 邦文타이프라이터가 횡행하게 되었다. 1915년에 杉本京太가 고안한 이 기계는 개인용은 못되나 시중에서 흔히 孔打니 靑打니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글字盤을 보태서 당장은 충족되었지만, 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차원에서 電算機의 일종인 워드프로세서의 출현이 아니면 안되었다.

文書編輯機(word processor)라고도 하는 이 기계는 필요한 字種, 字形, 字數뿐만 아니라, 文章의 入出力, 記憶, 編輯, 變換 등도 자유로워서 오늘의 文字生活를 거의 완전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 요술상자와 같은 이 魔法의 打字機는 우리 文字生活에 혁명적인 변혁을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이제는 한글의 機械化, 文字生活의 現代化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글 풀어쓰기나 한글專用을 기어코 해야 한다는 主客이 전도된 주장은 못하게 되었으니, 발에 꼭 맞는 신을 골라 신을 시대가 된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機械化의 相乘作用에 기인하나, 電算機의 발달에 따라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1950년대 소聯의 BESM과 美國의 IBM에서 개발된 電算機의 實用은 오늘날 電算植字組版 시스템을 완성시켰고, 그 端末機는 개인의 打字機도 대신하여 무한한 힘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개인용과 대중용 구별이 없어지고, 音聲言語의 機械化도 相乘作用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말과 글의 차원까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온갖 言語生活의 機械化가 종합화되고 일체화된 날이 닥쳐올 것이다. (1987. 11. 27)*

(電算機의 발전이 하루가 새로운 지금, 이 분야의 전문이 아닌 필자로서 이 부분을 서술한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言語生活의 機械化는 이미 이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졌고, 장차는 더욱 불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電算機가 대중화되는 시대인 만큼, 그 문제가 반드시 그 專門聖域에만 갇힐 성질은 아닐 것이다. 근래에 등장한 學際란 용어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